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시편 66(65), 1-2

온 세상이,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3, 13-15, 17-19

화답송 | 시편 4, 2, 4, 7, 9 (◎ 7c)

◎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또는 ◎ 알렐루야.)

○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저를 구해 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 주신다. ◎

○ 많은 이가 말하나이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 주랴?”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

○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드나이다. ◎

제2독서 | 1요한 2, 1-5ㄱ

복음환송 | 루카 24, 32 참조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 루카 24, 35-48

영성체송 | 루카 24, 46-47 참조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으니,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여라. 알렐루야.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기쁨에로의 초대

성경 속에 드러나는 베드로의 다양한 모습에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치자 고기가 많이 잡혀 두려움에 주님께 떠나달라고 청하는 모습, 물 위를 걸어오시는 스승님을 유령으로 착각한 나머지 두려워하는 모습, 거룩한 변모 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지어드리겠다고 호기롭게 말씀드리는 모습, 스승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사양하다가 손과 머리까지 씻어 달라고 하는 모습, 최후 만찬 때 자신은 스승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모습, 예수님을 잡기 위해 들이닥친 이의 귀를 칼로 내리치는 모습,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는 모습, 그리고 그분 말씀이 떠올라 슬퍼하던 모습, 이른 아침 주님의 무덤에 달려가는 모습, 예수님의 죽음에 절망하며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습, 물고기를 잡던 중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호수로 뛰어드는 모습,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의 질문에 슬퍼하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라고 답하는 모습….

호언장담, 슬픔과 분노, 두려움과 절망 같은 인간적 감정을 잘 알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 모습이 우리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제1독서(사도 3,13-15,17-19)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조했던 유다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메시아시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 절망했었지만, 그분 부활

을 체험한 뒤 부활의 기쁨 속에서 살게 된 베드로입니다.

복음(루카 24,35-48)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다른 제자들 틈에서 그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 당신의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시고 식사를 하시자, 그제야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마음을 놓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인간적 모습과 함께 기쁨에 넘쳐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게 된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슬픔과 분노, 두려움과 절망을 느낍니다. 주님을 향한 미지근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냉담의 길을 걷거나 아예 신앙에 무관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이고 나약한 모습은 그 자체로 용서받지 못할 모습은 아닐지 모릅니다. 바닥을 치는 순간, 스스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느끼는 순간, 이제 희망은 없다고 절망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에 짓눌려 신음할 때, 당신 부활의 기쁨에로 초대하십니다. 이 기쁨을 향한 초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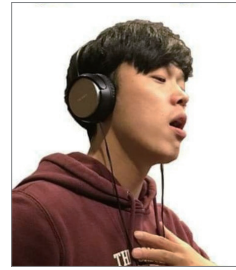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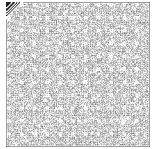
(구)성글라라봉쇄수녀원, 과테말라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루카 24,36)

16세기에 지어진 후, 잦은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형체만 남은 봉쇄 수녀원 경내를 걸어봅니다. 빈 창틀 사이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옵니다. 비상하는 날갯짓에서 자유와 평화가 느껴집니다.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예수님. 모든 이에게 선포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예진호 마르첼리노 | 생활성가 가수

경쟁자에서 동료로

모태 신앙이었다가 직장 발령으로 인한 타지의 낯선 성당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던 저는 지인을 따라 우연히 가게 된 한 성당의 성가대에 입단함으로써 마침내 냉담을 풀고 다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도 점점 나이를 먹어갔고, 청년회에서 영원히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30대 중반에 들어서니 또래 단원들은 하나둘 퇴단을 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 자연스럽게 다음 진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땅한 길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청년 성가대에 계속 남아 있기에는 다소 많고, 성인 성가대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어린, 애매한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제 머릿속에는 “나이 등 다른 제한 없이 평생 즐겁게 성가를 부르며 활동할 수 있는 단체는 있을까?”라는 고민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한 번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활동하는 성가대에 저를 소개해 줬던 형이 곡을 써줄 테니 cpbc창작생활성가제에 나가보지 않겠냐며 권유하였고,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성가제에는 성가를 부르는 분들이 많이 오시겠지?”, “이곳에서 나를 알리면 나에게도 계속 성가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거야.”라는 확신이 들었고,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하여, 며칠 후 본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워크숍의 기억은, 지금도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앞둔 총 11팀의 경쟁자들은 함께 모여 나눔을 하고 찬양을 하며, 자연스럽게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찬양하게 될 동료로 서로를 인식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함께 마음을 모아 성가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얼마 후 성가제에서 다시 만난 저희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였고, 성가제가 끝나면 다시 뭉쳐서 함께 찬양을 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하나의 팀 ‘열일곱이다’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열일곱이다’에는 마음이 맞는 다양한 талан트가 있는 새로운 멤버들도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고마운 분들의 도움 덕분에 꾸준히 찬양을 하는 팀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며 매월 17일, 새로운 성가로 신자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한 개인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찬양하고 싶다는 저의 꿈을 주님께서 ‘열일곱이다’를 통해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활동을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를 이끄는
성경구절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골로 4:13

이현정 아미카
의정부교구 구리성당

김대건2 성장통의 극복: 천선개과(遷善改過)

올해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자 김대건 신부님이 유네스코 세계기념 인물로 선정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희년을 지내는 동안, 하느님을 사랑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같은 해에 태어난 기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모범을 본받아 두 분의 영성을 우리 삶에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마카오 유학 시절 김대건은 스승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최양업) 토마스는 계속해서 유리한 상태에 있고 천주님께서 그의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조선 포교지를 위해서 유익한 몸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불쌍한 안드레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위병과 요통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리털만 보아도 그가 심각한 두통을 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의 머리털은 회색이고 희고 누르스름한 색 등 온갖 색깔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이렇게 추한 머리털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뿐더러 그는 판단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리브와 신부가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서한, 1839.8.11)

김대건은 세 소년 중 가장 늦게 신학생으로 발탁되어 라틴어 기초를 배우지 못한 채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또한 다른 스승 신부의 기록에 따르면 김대건은 생존 싸움과도 같은 유학 초기 생활을 일종의 성장통을 겪으면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가 이 성장통을 이겨내기 시작한 것은 1842년 에리곤호를 타며 세실 함장의 통역 역할을 할 때부터였습니다. 필리핀, 상해, 남경을 거쳐가는 여행 중에 해외 건문을 넓히게 되었고, 통역 자격으로 남경조약 조인식에도 참석하면서 병약하던 그의 기질이 나아졌습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겪은 그의 여행은 그의 육체적인 힘을 발달시켜 주고, 그의 기력과 타고난 마음의 대담성을 왕성하게 하고 원숙하게 하여 주었다.”(달레의 『한국 천주교회사』 중에서)라고 달레는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김대건은

훈춘을 향한 여행, 부제품 이후의 한양 입국, 나룻배를 타고 상해로 가는 용덕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심경부주(心經附註)』의 천선개과(遷善改過)장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천선(遷善, 선으로 옮겨감)이 곧 개과(改過, 허물을 고침)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 천선(遷善)은 색깔이 엮은 것을 희게 하는 것과 같고, 개과(改過)는 새까만 물건을 희게 하는 것과 같다. 천선(遷善)은 남이 나은 것을 보고 … 즉시 옮겨 가는 것이고, 개과(改過)는 대단히 용맹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를 위해 약간 풀어서 의역하였지만, 개과천선(改過遷善)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대건은 성장통을 극복함으로써 병약한 몸을 이겨내 용덕을 발휘하였고, 신덕(信德)으로 개과천선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파스카 시기에 ‘천선개과’의 모범을 보여주신 성인을 기억합니다.

“

이런 황망한 시절을 당하여,
마음을 늦추지 말고
도리어 힘을 다하고 역량을 더하여,
마치 용맹한 군사가 병기를 갖추고
전장에 있음같이 하여 싸워 이길지어다.
(김대건 신부의 마지막 한글 서한 중에서)

”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 한국교회사연구소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 기도서 109쪽)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4월 20일(화)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cc.catholic.or.kr)-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0년 4월23일 백남희 베드로 신부(53세)
- 1944년 4월20일 안학만 루카 신부(56세)
- 1986년 4월23일 임중국 바오로 신부(80세)
- 1996년 4월19일 신인균 요셉 신부(91세)
- 2008년 4월21일 류영도 디오니시오 신부(83세)
- 2008년 4월24일 김택구 루도비코 신부(72세)

서울주보 알림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구정알림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온라인 독서모임 달달책방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문의: 02)727-2031
때: 5월3일 시작(4주간 온라인 진행)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1-2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 성사를 받은 교우 /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www.catholicpolice.or.kr) 참조
교육기간: 6월2일~10월20일 매주(수) / 20주 과정
교육장소: 가톨릭회관(명동)
신청기한: 5월28일(금)까지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2)742-9471,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중 '황석지 베드로'
때: 매달 셋째 (화) 4월 20일 오전 11시(162회)
곳: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B2 성 정하상 기념경당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참석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당일 선착순 마감)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명동대성당 예비신자 모집 안내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 / 문의: 02)774-1784
추후 대면 수업으로 전환 예정(6개월 과정)
때, 곳: 5월2일 오전 10시부터, 교육관 303호
현장 접수(각 반 50명 마감)
준비물: 반명함판 사진 1매 / 등록비: 1만원

5월	평일반	매주(금) 오후 7시30분
	주일반	매주(일) 오전 10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1266차 미사(내 마음의 복된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4월2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함흥교구 나남 본당, 청진 본당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분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갤러리1898 전시 및 공모전 안내 / 문의: 02)727-2337

1) 갤러리1898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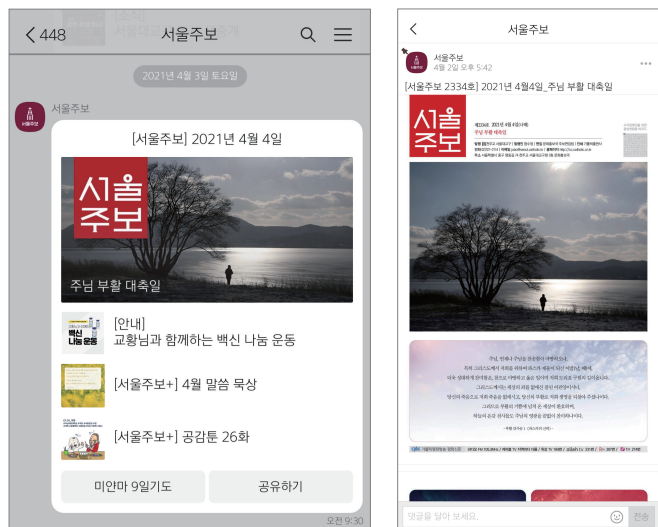
정연규 이콘전: 1전시실
신용순 회화전: 2전시실
전시일정: 4월21일(수)~4월26일(월)
2) 갤러리1898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
공모 주제: 성미술 관련
접수기간: 4월30일까지
굿뉴스 갤러리1898 홈페이지 참조

카카오톡채널

서울주보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주보"를 입력하세요.

서울주보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발행되는 서울주보와 교구소식을 모바일로 편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보 카카오톡 채널 구독 방법: ① QR 스캔 ➡ ② 노란색 버튼 클릭하세요!



서울주보 ①
친구 9,306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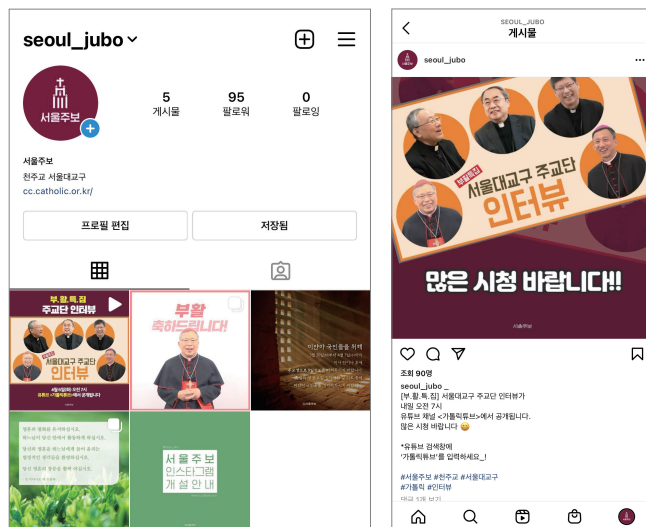
Ch+

Instagram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서울주보"를 입력하세요.

서울주보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면, 카드뉴스와 교회소식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팔로우 방법: ① QR 스캔 ➡ ② 팔로우 클릭하세요!



팔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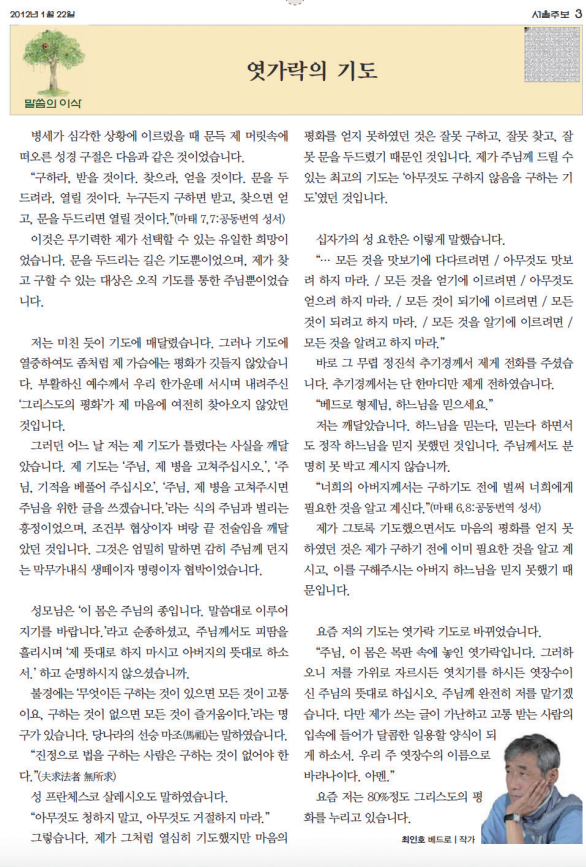
메시지

추천!

응답하라 1978

최인호 작가와 서울주보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주보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공식 주간 소식지입니다. 1970년대 이전에는 본당 단위로 발행되었고, 주로 전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 1978년 홍보 주일을 맞아 교구 통합 주보인 '서울주보'가 탄생하였습니다. '서울주보'는 한때 30

만 부 가까이 발행되어 손꼽히는 우리나라의 주간 매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의정부 교구가 분할되고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쇄 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주보는 시간을 지나며 계속 변화했고 교구의 전체 신자를 대상으로 복음 해설, 신앙 나눔, 교리교육에 교회 소식까지 전달하는 대표적인 홍보매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1년 4월 18일 현재 서울주보는

2336호를 발행 중입니다.

서울주보는 신자들에게 열독률이 높은 매체로 유명합니다. '서울주보'에서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말씀의 이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이삭' 코너에 지금은 세상을 떠난 故 최인호(베드로) 작가님의 글을 1990년부터 실었던 것은 서울주보 역사에서 큰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 작가님을 통해 서울주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는데 이견



이 없을 것입니다. 신자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며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서 공감을 느끼게 한 부분은 최인호 작가님 묵상글의 큰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분의 글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도 묵상할 수 있구나’ 하며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인호 작가님은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30일 피정을 따로 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묵상 글은 깊은 성찰 속에서 체험한 복음 묵상에 천재적 글솜씨가 더해져, 신자들이 아주 쉽고 정확하게 주님 말씀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최인호 작가님이 하느님께서 주신 талан트를 정말 잘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침샘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최인호 작가님은 9주 동안 서울주보의 ‘말씀의 이삭’ 코너에 감동적인 투병기를 실었습니다. 그 글들은 투병기를 넘어 신앙과 삶에 대한 폭넓은 성찰을 담았습니다.

그 글에서 최인호 작가님은 시간, 공간, 역사와 문명은 한 송이의 꽃에 비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환상일 뿐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송이의 꽃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사람을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모도 태어나기 전의 ‘한 처음’으로부터 온 ‘사람’의 씨앗이며,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의 창세기로부터 온 ‘사람’의 열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의 꽃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하며 생명의 신비를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짧은 인생은 존재하지도 않는 일존광음(一寸光陰)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분의 글은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 작가님이 사실 낮을 가리고 수줍어하는 성격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표현을 하시는 것을 조금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글을 쓰면서 실제의 삶도 함께 변화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 작가님은 전화 통화를 할 때, 보통은 인사와 더불어 일들에 집중해서 말을 하시고 개인적인 이

아기는 잘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투병 중에 있던 최 작가님이 전화를 끊기 전이었습니다.

“...저기 신부님!”

“네?”

“신부님, 사랑합니다!”

그다음부터는 항상 문자나 통화 끝에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꼭 예수님에 대해 책을 쓰고 싶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만약 그런 책이 나오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작가님은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자료도 많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글을 결국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최고의 신앙 수필작가’가 바로 최 작가님이라는 데 많은 이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분이 서울주보에 쓰셨던 한 글자, 한 글자는 우리에게 영적 선물이 됐습니다. 2012년 1월 서울주보에 실은 ‘옛가락의 기도’는 그 절정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이 몸은 목판 속에 놓인 옛가락입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가위로 자르시든 옛치기를 하시든 옛장수이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다만 제가 쓰는 글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입속에 들어가 달콤한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옛장수의 이름으로 바라나이다. 아멘.”

얼마나 많은 신자가 최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생명의 희망을 품고 한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먼지가 일어난다. 살아난다. 당신은 나의 먼지. 먼지가 일어난다. 살아야 하겠다. 나는 생명. 출렁인다.”

그분의 바람처럼, 영원한 생명 안에 안식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서울주보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최 베드로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인준단체 알림

모임

부활의 성모 묵상 피정

때, 곳: 4월26일(월) 10시~13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문의: 010-9620-4820 마리아학교

수도전통 렉시오 디비나(상지피정 집)

말씀 안에서 하느님과 깊은 친교 / 회비: 15만원
때: 5월11일~6월29일 매주(화) 10시부터 / 010-9401-9374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성경통독 모임(예언서)

때, 곳: 5월5일~12월1일 매주(수) 19시30분, 온·오프 병행(1일 마침 피정) / 대상: 34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010-6561-8835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문의: 010-3340-0201 도미니코 피정의집(형성)

효소단식	5월13일(목)~16일(일)
성경완독	5월21일(금)~29일(토)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성지순례 피정	5월8일~11일, 5월16일~19일
자연순례 피정	4월26일~28일, 5월1일~3일, 5월22일~24일, 5월28일~30일, 6월19일~21일

교육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영성특강

때: 매주(금) 15시40분~16시40분 / 회비: 1만원
곳: 지하 1층 명례방 / 문의: 02)3147-2402

신앙인으로서의 순명	5월7일 조동원 신부	5월14일 조동원 신부
	5월21일 방종우 신부	5월28일 서한석 신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생애	6월4일 조한건 신부	6월11일 옥승만 신부
	6월18일 조한건 신부	6월25일 원종현 신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1년 후기(주간) 신입생 모집

1차 전형 원서접수: 4월19일(월)~29일(목)-전형일 5월15일(토) / 2차 전형 원서접수: 5월17일(월)~27일(목)-전형일 6월12일(토)
문의: 02)705-8668(http://gsot.sogang.ac.kr)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석·박사 통합	신학 가톨릭사회복지학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수시 가능 / 접수: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람·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 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1년 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6월7일(월) 14시
원서접수: 5월3일(월)~14일(금) 17시
문의: 02)2258-7076 대학원교학팀, 02)2258-7107 친교실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프로그램

영신수련 준비강좌: 영신수련 바탕의 기도·묵상·관상 전반 안내-코로나의 어려움을 넘어 피정의 기회로
때: 5월 개강 예정, 매주(화) 14시~16시(총 12주)
곳: 비대면 온라인 / 강사: 권효섭 신부
4월23일 16시까지 접수 / 홈페이지: http://inigoress.kr
문의: 02)3276-7794 (월~금) 10시30분~16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음악아카데미

교육과정: 수시 모집
회비: 16만원(8주 기준) / 문의(접수): 해당 과목 강사

오르간	(화) 16시30분~18시30분, 18시30분~20시30분	문의: 010-7795-6409
국악가·대금·소금·단소, 생활음악악기·팬플룻·통기타·우쿨렐레·오카리나·아이리시틴하울	(목) 10시30분~12시30분, 15시~17시, 18시~20시	문의: 010-7930-2074
재즈피아노	(목) 19시~21시, (금) 10시~12시	문의: 010-7244-1312

모집

cpbc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초3~초6 컷영성체 받은(2021년 예정인) 가톨릭 신자 / 문의: 010-2650-8014
오디션: 4월24일(토) 15시, 가톨릭평화방송 B1 합창단실 4월22일(목)까지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주교좌 명동대성당 미사해설단 신규봉사자 모집

대상: 견진성사를 받은 37세 미만 남녀 교우(단,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자로 서울대교구에 거주하는 자)(토) 16시 회합 참석 및 평일 18시 미사봉사 가능한 자에 한함(교적증명서 제출 필수) / 문의: 010-9110-2046 단장
4월19일까지 접수 / 오디션: 4월24일 16시 예정

인내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우울·공황·대인기피·강박) 종합심리검사

분노조절과 의사소통 / 문의: 010-7342-9300

때, 곳: 5월1일~29일 매주(토) 14시~17시, 수원 우만동 주회: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 우만동

포메스영성상담소

영성, 그 길을 만나면 삶과 회복이 있습니다
대면상담·전화상담 모두 가능(주1회)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천주교 대전교구 / '치매안심병동' 운영
신경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주일·평일 미사 및 봉성체 / 문의: 041)950-1008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온라인 복음화학교 '치유치유TV' 구독 안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치유치유TV를 검색한 후 '구독'을 누르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치유와 위로의 영상 강의가 매주 월요일마다 올라갑니다
문의: 02)753-8765 새천년복음화학교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여성의 전화 상담

여성 전화 상담	(월~금) 10시~16시 / 문의: 02)990-9366
대면상담	심리·가족상담 / 문의: 02)990-9360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co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상처입은 마음치유와 가족관계 회복	5월17일~7월19일 매주(월) 10시~12시(10주)
전문심리치료	가족(부부, 불안, 우울, 분노, 강박행동, 대인기피)

전·진·상 영성센터 / 문의: 02)726-0700

생활 속의 심리학	몸·트라우마·정서에 대한 이해-5월6일~6월17일 매주(목) 13시~15시(7주)
소통과 관계훈련	5월15일~6월26일 매주(토) 10시~13시(7주)
사목상담	대상: 개인, 가족, 부부, 청소년 누구나(무료 10회기)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동기회 통일가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4월27일(화) 14시, 서울대교구 양천(지)성당

다솜터 심리상담소 / 문의: 010-9295-5912

상담: 불안, 우울, 공황, 부부, 영성상담, 검사(진료·심리), 화상(Zoom), 전화상담 가능 / www.dstoun.net
소장: 이찬 신부(골로산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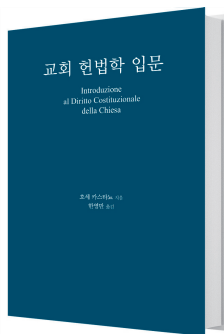
직원모집

요셉의원 직원모집(약사·재무회계)

노숙자, 행려자 등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의원으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함께 일할 직원을 구함
서류·자격: 요셉의원 홈페이지(http://josephclinic.org)
공지 참조 / 서류 접수·문의: info@josephclinic.org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월 넷째주(토) 15시~(일) 13시	서울 분원(장충동)	010-8353-2323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5월2일(일) 14시·18시(선택 가능)	Zoom 화상 모임	010-4096-5973 마리아노엘 수녀
예수고난회	5월1일(토) 18시~2일(일) 13시	수도원(도암동)	010-6804-4904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4월25일(일)	분원(삼전교)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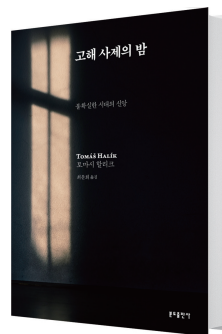


신간

교회 헌법학 입문

호세 카스타냐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216쪽
9천원 | 문의: 02)740-9718

이 책은 교회의 법적 측면에 있어서 본질적 구조와 원칙들을 다룬다. 저자 호세 카스타냐 신부는 『교회 헌법학 입문』을 통하여 교회법에서 헌법적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교회의 법적 성격과 교회 권력의 본성과 그 범위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우리에게 전해준다.



신간

고해 사제의 밤
불확실한 시대의 신앙

토마시 할리크 지음
분도출판사 | 280쪽
1만9천원 | 문의: 02)2266-3605

현대인들이 품고 있는 신앙에 대한 고민과 혼란을 깊은 신학적 통찰로 바라본다. 불안정한 현실과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신앙이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cpbc 라디오 **봄 개편** 안내

토~일 18시5분~20시

임형주의 너에게 주는 노래

천상의 목소리로 희망을 전하는 세계적 파페라 테너 임형주가 새롭게 진행을 맡는다. 친숙한 음악과 사랑이 머무는 '임형주의 너에게 주는 노래'에서 위로와 힐링을 느껴보자. 임형주가 청취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악을 골라주는 <임형주의 셀렉트>, 책과 음악이 있는 따뜻한 시간 <임형주의 책갈피> 그리고 <임형주의 안단테 안단테> 등 코너를 준비하며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한다. 느리게 그리고 포근하게 당신을 녹여줄 힐링 타임, 음악과 사랑이 만나는 시간 주말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월~토 8시~10시

행복을 여는 아침

신자들의 활기찬 아침을 책임지는 대표 프로그램 <행복을 여는 아침>이 새롭게 청취자를 만난다. 기상캐스터 오수진(아가씨)이 전하는 몸과 마음의 날씨 뉴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문제 풀이 대잔치 - 대견별시'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생활 정보뿐 아니라 교회 내외 소식을 재미있게 퀴즈로 풀어본다.



월~금 21시~22시

힘들 땀 전화해

고단한 하루, 지치고 힘든 날 무거운 고민부터 사소한 고민까지. 우리의 우울함을 스스럼없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 힘들 땀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곳. 5인 5색의 심리상담 전문가가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준다.



◎ 2021년 명동대성당 상반기 견진성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상반기 견진교리는 현장 수업 대신 '비대면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합니다.

★진행순서: 견진교리 신청 → 비대면 온라인 클래스 동영상 강의 시청 완료 → 견진성사 접수 & 전례연습 → 견진성사

1. 견진교리 신청

·신청대상 : 세례성사를 받고 첫영성체를 한 20세 이상의 가톨릭 신자

·신청일시 : 4월 18일(주일) 오후 2시 ~ 4시

·신청장소 : 명동대성당 내 '범우관 4층 & 5층'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현장 신청

☞ 선착순 250명, 사전신청·전화신청 불가

☞ 당일 신청 인원 미달 시 5월 9일(주일) 까지 본당 사무실에서 신청 가능

·유의사항 : 현장 신청 시 각 개인별로 온라인 클래스 ID & Password 발급 및 수강 방법을 안내 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비서류 :

대상자	구비서류	발급장소
명동성당 교적 신자	① 증명사진 1장	-
	② 세례성사증명서	교적 본당
	③ 견진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 견진 대부모님의 견진성사증명서	대부모님의 교적 본당
타 본당 교적 신자	기본 구비서류(①~④)	교적 본당
	⑤ 신청자의 교적증명서	
	⑥ 견진의뢰서	

※③ [견진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명동대성당 홈페이지→성당소식→공지사항에 게재된 '2021년 명동대성당 상반기 견진성사' 공지 본문에 파일로 첨부돼 있으니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본당 사무실에서도 배부합니다.)

※⑥ [견진의뢰서]는 견진신청서 본문 중앙에 명시돼 있으며, 반드시 교적 본당 주임신부님의 서명 또는 직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 비대면 온라인 클래스 동영상 강의 시청

·강의기간 : 4월 18일(주일) 오후 4시~5월 15일(토) 오후 6시까지, 기간 내에 반드시 총 7강의 동영상 강의를 시청 완료해야 합니다.

3. 견진성사 접수 & 전례연습

·접수대상 : 4월 18일(주일)~5월 9일(주일) 견진교리 신청자 중 5월 15일(토) 오후 6시까지 동영상 강의 시청을 완료한 이

·접수일시 : 5월 16일(주일) 오후 1시 ~ 3시

·접수장소 : 명동대성당 내 '만남의 방' 앞마당

·준비사항 : 접수비 1만원 (코사지와 사진값), 감사예물 (정성껏 준비)

※접수 후 전례연습을 위해 대성전으로 이동하십시오.

※견진성사 접수 및 전례연습 불참 시 견진성사 불가!

4. 견진성사

·견진성사 : 5월 23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 오후 1시부터 '만남의 방' 앞에서

출석 확인 후 코사지와 명찰 수령

☞ 오후 1시 30분까지 대성전 입장 완료!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대부모님 참석 가능 여부는 추후 별도 공지합니다.

※견진성사를 위한 내적인 준비로 고해성사는 사전에 미리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헌금과 미사보(여성)를 준비해 주십시오.

·문 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 기부 집시 ◆◆

명동성당 종횡계획 2단계 기금

(4월 5일 ~ 4월 11일 : 1,100,000원)

누계 : 2,193,758,958원

차 정 자 : 1,000,000원 | 의 명 : 100,000원

기부 집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본당 사무실 업무시간

요 일	근무시간	비 고
화~금	09:00~19:00	평일(화~금) 점심시간 [12:00~13:00] 사무실 폐문
토요일		
일요일	07:00~20:00	

◎ 2021 명동 보름장 개장

·기간 : 4월~11월 (첫째·셋째 주일) 10:00~16:00

방역지침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바구니와 개인 반찬그릇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김대건 신부님 서간집 필사 노트·독후감 제출

김대건 신부님 서간집 필사 노트와 독후감 제출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제출마감 : 5월 2일(주일) 오후 8시까지 본당 사무실

·시 상 일 : 5월 30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후

※시상대상자(제출순위 1~10등)는 개별 통지

◎ 명동대성당 청년 레지오 마리아 신입단원 모집

·문 의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명동성당 청년 레지오' 검색하여 1:1 문의

·회 합 : 매주 주일 오전 10시~ / 온라인 주 회합

·참고사항 :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회합은 온라인 비대면 회합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김한국(베 드 로)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보좌 파비아노 레베자니 신부

《 교황님과 함께 하는 ‘백신 나눔 운동’ 》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21년 춘계 정기 총회를 통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과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시복시성을 준비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백신 나눔 운동’에 모든 교구가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혜택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하는 이 ‘백신 나눔 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백신 나눔 운동’ 참여 방법 ※

1.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본당 사무실을 통하여 성금을 내시면 되고, 비신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2. 형편에 따라 성금 액수는 자유로이 하실 수 있으며, 참고로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금액은 약 6만 원입니다.
3. ‘백신 나눔 운동’ 참여 기간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 종료되는 올해 11월 27일(대림 제 1 주일 전날)까지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미사 참례 지침 안내 (※4월 18일 현재)

단 계	미사 참례 지침
1단계	1~2미터 간격을 두고 띄어 앉기
1.5단계	좌석 수의 30% 입장 (☞ 대성전 기준, 약 375명)
2단계	좌석 수의 20% 입장 (☞ 대성전 기준, 약 250명)
2.5단계	좌석 수의 10% 입장 (☞ 대성전 기준, 약 125명)
3단계	비대면을 목적으로 한 영상 제작과 방송 송출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주례자+스태프)만 입장

※상기 안내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본당 미사 참례 지침에 따라 주보 발행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을 시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본당 홈페이지 하단 유튜브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미사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구청본관·가톨릭회관 지하주차장 사용 불가**
방수 공사로 인하여 5월 한 달 간 교구청본관·가톨릭회관 지하주차장 사용이 불가합니다. 교우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평일과 주일 미사 참례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일부터 공사 종료 때까지 주일미사 참례자에 대한 지하주차장 요금 감면을 중단합니다 !

◎ 5월 예비신자 교리반

명동대성당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과정의 교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예비신자 환영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5월 2일(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접 내방 접수로 교리반 신청을 받으며, 비대면 온라인 화상 수업(Zoom 프로그램)으로 진행 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반	시 간	강 사
금요반	오후 7:30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
주일반	오후 4:00	이 요셉피나 수녀

※2개 반 중 택일하여 신청, 각 반 50명씩 선착순 접수

※교리반 접수 장소 : 교육관 303호

※접수 시 준비사항 : 등록비 1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2021년 명동대성당 상반기 견진성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상반기 견진교리는 현장 수업 대신 ‘비대면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 안쪽 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성소 주일 2차 헌금

다음 주 부활 제 4 주일은 「성소 주일」로 성소 계발과 성소자 육성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4월 세례자 감사예물

지난 주일 세례성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예물로 3,645,000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4/5-4/11).....23,427,000
• 부활 제 2 주일 헌금.....16,285,000
• 감사헌금 (4/5-4/11).....3,501,000
고 니콜라오 / 기 에디타 / 김 글라라
김 마리아 / 김 소피아 / 박 율리안나
박 크레센시아 / 심 알베르토 / 안 세실리아
원 안젤로 / 이 사라 / 임 사무엘
장 베로니카 / 장 율리아빌리아르
장 파비올라 / 최 세실리아 / 하 마리아
현 베로니카